

#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순희, 유지형  
동신대학교

##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 on Empathy in Adolesc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Park Sunhee, Yu Jeehyoung  
Do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공감과 공감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문화경험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동시에 다문화수용성 및 문화적공감이 간접효과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청소년 26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변수들 간에는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을 매개하는 경로를 통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수용성 및 문화적 공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두고,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다문화경험,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공감, 공감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multicultural experi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cultural empathy, and empathy in adolescents. Moreover, the study attempted to reveal that how multicultural experience had an effect on empathy and whether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had an indirect effect.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 study model was establishe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266 adolesc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and adolescents' multicultural experience had an effect on empathy via the path of media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Therefore, it was suggested to develop programs which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However, they should be offered differentially and implemented sustainably in stages.

**Key Words** : Adolescents, Multicultural experi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Cultural empathy, Empathy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NRF-2015S1A5A8015308)

Received 27 February 2017, Revised 28 March 2017

Accepted 20 April 2017, Published 28 April 2017

Corresponding Author: Yu Jeehyoung(Dongshin university)

Email: jh\_land@naver.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의 다양한 이유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여성가족부[19]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은 278,036가구로 추정되며, 2012년 266,547가구에 비해 4.3%가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수도 2012년에 비해 24%가 증가한 82,476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 전체학생은 2011년 기준 6,986,853명이었으나 2015년은 6,097,297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오히려 2011년 38,678명, 2012년 46,954명, 2013년 55,780명, 2014년 67,806명, 2015년에는 82,536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1].

그러나 한국사회는 다양한 나라와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된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는 과거 속에 살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33]에서 실시한 국민다문화수용지수(KMAI)를 살펴보면, 51.17점으로 나타나 다문화수용성 상위 20%에 속한 국민의 평균치 70.89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외국문화 개방 순위는 세계 57개국 중 56위로 나타나고 있어[39]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12].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남아있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19]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이나 무시 경험은 9.4%로 나타나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학교폭력 피해를 또한 5.0%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고민이 있을 때 자신의 부모 외에는 주변에서 대화상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

한편,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도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보려는 욕구가 증가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형식적이고 비형식적인 다문화 경험들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청소년의 다문화적 경험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 태도

등이 달라질 수 있다[27].

정석원과 정진철[2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다문화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금혜령[2]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고,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하고 다른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접할 기회를 갖으며, 미디어 등을 통해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인종과 다양성에 대한 태도 및 문화에 대한 수용능력은 얼마나 다양한 경험요인들에 노출되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들 다문화경험으로부터 얼마나 유익한 경험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35].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며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서 공감 개념을 강조하고, 문화적으로 민감성을 증진하는데 타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6]. 김정연[9]은 다른 인종 및 문화 집단에 대한 공감을 문화적 공감이라고 정의하고, 문화적 공감 특히 정서적 공감은 몰인종적 태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22]. 다문화사회에서는 인종과 민족이 다른 타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그들이 느끼는 불행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는 친사회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화적 공감 및 공감능력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다문화 수용성의 증진을 도울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및 다문화수용성이 문화적 공감과 공감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47, 48, 49]은 다문화경험 및 수용성과 공감능력의 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및 다문화수용성, 문화적공감과 공감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문화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공감과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고찰

### 2.1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이란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편견 없는 태도로 인식하여 다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27]. 다문화수용성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 하며, 타인의 정서를 수용하고 반응하며, 개방적인 태도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은 다양하며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다. 표현 방법 또한 문화적 수용성, 문화적 역량, 비교문화 적응성, 비교문화 유능성, 문화간 감수성, 다문화 효능성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감,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태도, 종족적 배제주의, 국민정체성, 외국에 대한 태도 등의 개념들로 측정되고 있다[2].

이 중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차이의 인식과 수용,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민성혜와 이민영[11]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문화적으로 다름에 대해 인정하며, 이를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들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고정관념 및 편견과 더불어 접촉경험이 일반아동들의 다문화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8]. 즉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하경애[3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인 외국 문화접촉, 미디어 속 다문화가정 경험, 다문화가정 접촉, 다문화교육 경험 등이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인 접촉 경험, 다문화교육 경험, 미디어 경험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외국인의 접촉 기간이 길수록 다문화 인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접촉 및 노출은 다문화적 경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 사람들과 만나거나 그 문화의 여러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경험을 말한다[8, 43].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있어서 '접촉'은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편견을 감소하며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24]. 접촉가설에 따르면, 인종 및 민족 관계에서 집

단 간 대인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감정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외집단 성원과의 긍정적인 접촉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긍정적 감정을 배양함으로써 갈등과 편견, 차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21]. 이러한 긍정적인 접촉의 증가는 상대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21, 40].

청소년 관련연구에서 타문화를 가진 사람(외국인 등)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대화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 나가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해외에 나가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을 대할 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한다고 한다. 또한 대화경험이나 해외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대화경험과 해외경험이 있는 학생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2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

문화적 공감이란 다른 인종 및 문화집단에 대한 공감의 개념[9, 45 재인용]으로 지칭된다. 문화적 공감 개념은 아직까지 정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자, 실천가와 타인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능력을 말한다[9]. Ridely와 Lingle[44]은 문화적 공감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문화적 공감이 일반적인 공감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렴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9].

선행연구들에서는 문화적 공감이 인종적 태도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키고 다문화 수용성의 증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 공감은 다문화 집단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다문화현장 실무자들의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이다[20]. 김정연[9]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공감이 몰인종적 태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몰인종적 태도와 상관없이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천가가 지닌 문화적 공감능력이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다문화 현장에서 실천가가 지녀야 할 자질 중에 하나로 공감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민성혜와 이민영[11]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다문화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며, 지식과 체험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공감’의 증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감은 다른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첫 단계이며, 민주사회의 보편적 윤리의 이해 및 실천을 위한 능력이다[37]. 이처럼 문화적 공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고,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적 공감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수용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적응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특정한 문화를 폄하하거나 다른 문화를 지배하여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닌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다원적 세계관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2.3 다문화경험, 문화적 공감과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정서 상태를 갖는 것이다[42]. 공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정서적 경향을 말한다[37]. 공감능력은 타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유발하며, 친사회적이고 대인관계를 좋게 하여 사회적응에 도움을 준다.

청소년들에게 공감능력은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적절하게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시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친구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 다양한 정서적 경험과 사회적 유능성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있어 공감능력은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관계를 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16].

또 공감능력은 타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여러 문화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경험들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공감능력을 극대화 시킨다. 특히, 청소년기는 가족이나 친구, 학교 및 학원, 지역사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문화

적 다양성과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 또 청소년기에는 외국의 영화나 음악, 게임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문화 활동을 전개하므로 다문화를 접할 때 개방적이고 수용적일 가능성이 높다[14].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공감능력은 친사회적 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29], 공감의 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다[30]. 이 외에도 청소년의 공감은 공격성, 갈등해결, 학교폭력예방, 비행 행동 감소 등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절한 문제를 감소시킨다[1, 7, 10, 26, 34]. 청소년의 높은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행 행동과 집단 따돌림, 공격성을 억제시키는 주요 변인이 되며, 청소년의 갈등해결 전략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36]. 따라서 청소년은 공감을 통해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로 인한 긍정적 자기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삶의 기초가 된다[16].

또한 타인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하여 함께 느끼는 공감은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의 출발점이며,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을 느껴보고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5]. 손은혜[18]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기초 인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공감,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야함을 강조하며, ‘타인과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지닌 사람’을 기르는 것을 교육적 목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동호[4]의 연구에서도 문화적 유능성이 다문화상담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어 공감능력이 소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감능력이 좋은 사람은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인간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집단과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공감능력의 증진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위치한 고등학교 2개교의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이다. 먼저 본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고,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1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26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성 89명(33.5%), 여성 177명(66.5%)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15세 51명(19.2%), 16세 60명(22.6%), 17세 93명(35.0%), 18세 61명(23.3%)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 198명(75.0%), 잘사는 편 33명(12.5%), 못사는 편 24명(9.1%), 매우 잘 사는 편 5명(1.9%), 매우 못 사는 편 4명(1.5%)로 나타났다.

## 3.2 측정도구

### 3.2.1 다문화 경험

본 척도는 워드[46]가 개발한 문화 간 생활경험 체크리스트(Cross-Cultural Life Experience Checklist, CCLEC)를 장인실과 이혜진[25]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적 경험에 대한 설문문항은 가족, 친구, 지역 사회, 학교·학원, 종교, 미디어, 외국어, 여행 등의 다문화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없다’는 1점, ‘거의 없다’는 2점, ‘조금 있다’는 3점, ‘많다’는 4점, ‘매우 많다’는 5점을 부여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a*)는 .881로 나타났다.

### 3.2.2 다문화 수용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석원[27]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수용성 척도는 사회 내에 다문화 및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a*)는 .726이다.

### 3.2.3 문화적 공감

문화적 공감은 Wang 등[45]이 개발한 문화적 공감 척도(Scale of Emnocultural empathy, SEE)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문항을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 김정연[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 공감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감적 감정과 표현(empathic feeling and expression), 공감적 관점 취하기(empathic perspective taking), 문화적 차이 수용(acceptance of cultural difference), 공감적 인식(empathic awareness)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공감 즉, 다른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공감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a*)는 .779이다.

### 3.2.4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41]의 대인관계 반응 지수(Interpersonal Reactive Index : IRI)와 Bryant(1982)의 공감적 각성 검사를 박성희[13]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연구대상자에게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등을 아우르고 있으며, 인지적 공감은 조망취하기와 상상하기, 정서적 공감은 공감적 각성과 공감적 관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Cronbach' *a*)는 .723으로 나타났다.

##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및 다문화수용성이 문화적 공감과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와 평균값 산출,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등을 확인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 통계량  $\chi^2$ 와 GFI, RMSEA를 통해 절대적합도를 평가하고, TLI와 CFI를

통해 상대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또 간접효과와 유의성 검정은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정상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및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수용성, 다문화공감, 공감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각 측정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또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고 일변량 정상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였는데, 각 척도들의 왜도는 2보다 작고, 첨도는 7보다 작음으로써 정상분포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Table 1> The correlation between the key variables and the average equation.

	Multi cultural experience	Multi cultural reception	Cultural Empathy	Empathy
Multicultural experience	1			
Multicultural reception	.177**	1		
Cultural Empathy	.173**	.296**	1	
Empathy	.175**	.228**	.461**	1
Average	2.12	3.43	3.09	2.86
skewness	1.19	.000	-.482	.221
kurtosis	3.03	.846	3.70	1.361

\* $p < 0.05$ , \*\* $p < 0.01$ , \*\*\* $p < 0.001$

##### 4.2 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공감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그 경로를 분석하였다([Fig. 1] 참고).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 간의 경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값을 추정하였다.

적합도 평가는 가설적 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적합성 지수 중 널리 쓰이고 있는 지수인 절대적합도 지수인 카이제곱 통계량  $\chi^2$ 와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그리고 상대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 및 문화적 공감, 공감능력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모형의 절대 적합도 지수인  $\chi^2$ 값이 2.402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p > .05$ 로 모집단의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TLI와 CFI가 .916와 .9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GFI가 .996으로 높고 RMSEA가 .073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은 양호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Table 2> The suitability of a model

	$\chi^2(p)$	df	TLI	CFI	GFI	RMSEA
Research model	2.402 (.121)	1	.916	.986	.996	.073
Acceptance criterion	$p > .05$		$.90 \leq$	$.90 \leq$	$.90 \leq$	$.08 \g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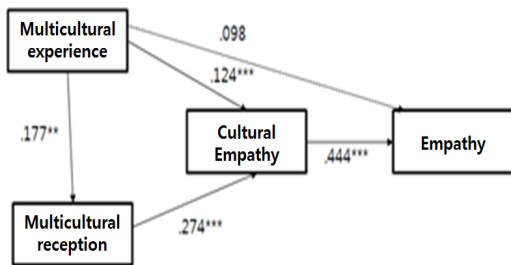
##### 4.3 모형의 경로과정

위의 검증을 통해 채택된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아래 [Fig. 1]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주요변수 간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 다문화경험 → 다문화수용성, 다문화경험 → 문화적 공감, 다문화수용성 → 문화적 공감, 문화적 공감 → 공감능력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고( $\beta = -.177$ ,  $CR = 2.923$ ,  $p = .003$ ) 다문화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 공감 수준이 높아졌다( $\beta = .124$ ,  $CR = 2.106$ ,  $p = .035$ ). 또한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문화적 공감 수준이 높아지고( $\beta = .274$ ,  $CR = 4.643$ ,  $p < .000$ ), 문화적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능력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eta = .461$ ,  $CR = 8.460$ ,  $p < .000$ ). 그러나 다문화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경험이 공감능력에 이르는 경로과정의 영향력들 중 문화적 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문화수용성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 다문화경험이 문화적공감에 미치는 영향력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path of a model

Route	Coefficient of non-standard	standard error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C.R.	p
Multi cultural reception <- Multicultural experience	.097	.033	.177	2.923	.003
Cultural Empathy <- Multicultural experience	.055	.026	.124	2.106	.035
Cultural Empathy <- Multi cultural reception	.222	.048	.274	4.643	.000
Empathy <- Cultural Empathy	.539	.067	.444	8.047	.000
Empathy <- Multicultural experience	.053	.030	.098	1.778	.075



[Fig. 1] The path of a model

4.4 모형의 효과 검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이 다문화경험과 공감능력과의 관계에서 경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의 직·간접효과 및 전체 효과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문화적 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경험과 문화적 공감과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49로 나타났다.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경험은 문화적 공감에 직접경로와 간접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수용성은 문화적 공감의 매개적 과정을 거쳐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공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122로 나타났다. 또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을 매개로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경험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7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을 매개로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을 통한 공감능력의 향상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한 결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의 간접효과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로써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경로와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4> Effects of the Model,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Route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Bootstrapping)
Multi cultural reception <- Multicultural experience	.177	-	.177	
Cultural Empathy <- Multicultural experience	.124	.049	.173	.006
Cultural Empathy <- Multi cultural reception	.274	-	.274	
Empathy <- Cultural Empathy	.444	-	.444	
Empathy <- Multi cultural reception	-	.122	.122	.012
Empathy <- Multicultural experience	.098	.077	.175	.012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공감과 공감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문화경험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과 동시에 다문화수용성 및 문화적공감이 간접효과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청소년 26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 공감능력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우[23], 정석원과 정진철[28], 박순희와 김선애[14], 박지영과 조경자[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공감 및 공감능력은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을 매개하는 경로를 통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공감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을 경로로 하여 간접적으로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연[9]의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경험이 많으면 다문화수용성도 높아지고, 문화적 공감 능력도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공감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문화경험을 많이 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고 문화적 공감 및 공감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다문화경험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및 문화적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면 낮은 다문화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가정이나 환경의 자원이 부족하여 다문화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했더라도 다문화수용성 및 문화적 공감 능력을 높이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다문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 상으로

성장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타문화 이해 및 공감 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시대에 청소년이 적절히 기능하는데 필요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촉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간접적으로 다양한 사회문화를 경험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가정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청소년이 세계의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그 기회가 제한될 수 없으므로 문화 바우처 등을 확대하고 그 내용적 측면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적 공감은 일반적인 공감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문화집단과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실무자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단순히 다문화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에 문화적 공감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교육이나 실무자들을 위한 보수교육의 내용으로서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들은 다소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경우가 많다[9].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들 역시 형식적이며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 및 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두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한계가 많으므로 일반 거주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감능력은 성장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이므로, 청소년이 공감적 태도와 정서적인 수용반응 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



및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A시에 위치한 2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절차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및 공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만을 제시하였지만,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하고 경로과정을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한 타문화 이해 및 공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ACKNOWLEDGMENTS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 REFERENCES

- [1] Younglong Koo, "Impact of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nd empathy on relational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16.
- [2] H. R. Geum, "The Effect of Adolescents'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Experience on Multicultural Awarenes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13.
- [3] Dae-Chul Kim,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Multicul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jin University, 2013.
- [4] Dong-ho Gim, "The Effect on Burnout by Multicultural Counselor's Cultural Competenc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bility and Feminist Therapist Competenc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2013.
- [5] Y. S. Kim, S. E. Choi, H. S. Kwon, "A Study on the Meaning of Interactive Cultural Empathy in Primary School.",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ociety, Vol. 2015, No. 4, pp. 52-58, 2015.
- [6] Eunhye Kim, Jimin Sung, "A Study on Cultural Sensitivity, Empathy and Self-Efficacy in Undergraduate Health and Social Welfar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5, pp. 2769-2779, 2014
- [7] JungMi Kim, "The relationship among empathy, peer influence, social support and agg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7, No. 1, pp. 49-72, 2009
- [8] Jungdeok Kim, Eunkyong Lee,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lticultural interaction awareness and global competence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 Association for Core Competency Education, Vol. 1, No. 1, pp. 67-94, 2014
- [9] Jung-yun Kim, "A study on color-blind racial attitudes and cultural competence of service providers in multicultural setting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traini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3.
- [10] Jeehyun Kim, "The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dolescent's Empathy, and Their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to Friends." Department of Child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2.
- [11] Sunghye Min, Minyoung Lee, "A Exploratory Study about the 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focused on the Cultural Aware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1, No. 1, 183-206, 2009.
- [12] MeeHye Park,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Experience, Parents' Stereotype on Multicultural Efficac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5, No. 5, pp. 2749-2757, 2014.
- [13] S. H. Park,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un-eumsa, 1997.

- [14] Sunhee Park, SunAe Kim, "Cultural Experience and Multi-Cultural Awareness in Early Adolescent: Relationship among Openness, Acceptance, and Respect -Focused on G metropolitan city-.",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9, No. 7, pp. 27-50, 2012.
- [15] Jiyoung Park, Kyungja Cho, "Empathy and cultural impact of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understanding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439-448, 2016.
- [16] Hyewon Park, "(A) study of effects of empathy training on the empathic ability and the self-esteem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2.
- [17] B. R Bae, "(Amos 21)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cheonglam. 2014
- [18] Eunhye Son,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environment of Japan : focusing on K region of Japa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 [1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2015 (National Approval Statistics No. 11779,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2015.
- [20] G. J. Yun, "The Effects of Cultural Empath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Solving on the Cultural Competence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9, No. 3, pp.105-129, 2014.
- [21] I. J. Yun, Y. H. Song,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ol. 23, No. 1, pp. 143-192, 2011.
- [22] Sunyoung Lee, "Expandability of Empathy as Elements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Global Studies Education, Vol. 5, No. 2, pp. 47-68, 2013.
- [23] Jungwoo Lee, "A Study on Students' and Parents' Attitudes Toward Diversity.", Social studies education, Vol. 47, No. 3, pp. 297-320, 2009.
- [24] Jiyoung Lee,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 [25] Insil Chang, Hyejin Lee,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Vol. 13, No. 1, pp. 55-87, 2010.
- [26] Myungsun Chung, "The Effects of Empathy Training Group Art Therapy on Adolescents with Histories of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the Variables of Emotional Empathy and Aggression.", Studies on Korea Youth, Vol. 21, No. 4, pp. 51-77, 2010.
- [28] Seogweon Chung, "Affecting factors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adolescents.",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4.
- [28] Seogweon Chung, Jinchul Jung,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and social distanc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adolesc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5, No. 1, pp. 51-68, 2012.
- [29] Hanik Jo, Mihwa Lee, "The Mediating Effect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7, No. 11, pp. 139-158, 2010.
- [30] Yeonwoo Jung, "A Study on the Prosocial Behavior in Adolescent : Focused on Motivation, Psychological Experiences from Helping, and Empathy.",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Kangnam University, 2013.
- [31] Statistical Off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Youth Statistics for 201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Youth Policy, 2016.
- [32] KyoungAe Ha, "Analysis of Elementary Students'

- Attitude toward Cultural Diversity and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33]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National multicultural acceptance research.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2012.
- [34] Myungsu Han, “(The) Effects of an Empathy Training Program to prevention of the an delinquent adolescent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0.
- [35] Sujin Han, Jinkyung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tudents’ multicultural experiences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and Rights, Vol. 16, No. 1, pp. 173-194, 2012.
- [36] Yujeong Han, SoonHye Kim, “The Mediating Effect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Friendship of the Earl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12, pp. 471-491, 2015.
- [37] Dahyeon Hwang, “Elementary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through Empathy.”,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4.
- [38] Jimin Hwang, “The Factors Affecting Ordinary Children’s Sense of Social Distance from Those in Multi-Cultural Famil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2009.
- [39] Hyunda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Multiculturalism. Economic Research Division, 2009
- [40] Brown, R and Hewstone, M,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tact.”,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2005.
- [41] Davis, M. 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 10, No. 4, pp. 1-17. 1990.
- [42] Hoffman, M. L.,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 Academic press, 1992.
- [43] Leung, A, and Chiu, C, “ Multicultural experience, idea receptiveness and creativ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69-181, 2009.
- [44] Ridley, C. R., & Lingle, D.W., “ Cultural empathy in multicultural counseling: A multidimensional process model. IN P.B Pedersen, J,G, Draguns, W.J.Lonner, & J.E.Trimble(Eds.)”, *Counseling across cultures*(4th ed., pp21-46). Thousand Oak, CA:sage, 1996.
- [45] Wang, Y.W.M Davison, M.M, Yakushko, O.F., Savoy, H.B, Tan, J.A. & Bleier, J.K, “ The Scale of Ethnocultura Empathy: Development,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0, No. 2, pp. 221-234, 2003.
- [46] Ward, J. M, “The relationship of preservice teacher’s cross-cultural experiences with their belief about teaching divers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1996.
- [47] So-Jeong Park, Yang-Ja Bae, Sun-Hee Park, Sun-Ae Kim, “The E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to marriage immigrant wives whose spouse of in an old age : Focusing on Social service and Human suppo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493-507, 2015.
- [48] Young-Ae Jung, Hyeong-Soo Kim, “A Method of Using Digital Map to Improve Multicultural Education Efficiency : A Design of ‘e-Atlas of Society and Cultur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Overcome Contextual Limit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1, 13-21, 2014.
- [49] Sun-hee Park, “Effects of an Integrative Art Therapy Program on Self-Efficacy and Conflict Coping Strategies in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1, 565-575, 2016.

- [50] Weon-Hee Moon, Myoungjin Kwon, Young-Hee Kim, "Converging Influence of Empathy and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on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the Mentally Illness Patients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6, pp. 81-88, 2016.
- [51] Min-Kyeong Kim,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ess, Depression, Family Resilienc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205-210, 2016.
- [52] Jae-Il Yi, Jung Soo Han, "A study on developing a Learning material Screening system for improving foreign language learning efficiency",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7, No.1, pp. 87-92, 2017.
- [53] Kyung-Ihl Kim, Ji-Young Park, "Cultural Differences impact on the ERP System Implementation",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6, No.2, pp. 1-9, 2016.

**박 순 희(Park, Sun Hee)**



- 2009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2년 3월 : 동신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사회복지, 가족상담 및 복지

· E-Mail : Sunny681127@hanmail.net

**유 지 형(Yu, Jee Hyoung)**



- 2015년 2월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 학사
- 2016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 대학원
- 관심분야 : 상담, 다문화
- E-Mail : jh\_land@naver.com